

광주 인구, 2050년 120만명대로 추락 전망

2020년부터 자연감소…年 1만명 ↓
저출생·청년 유출 ‘구조적 위기’ 심화
생산가능인구 18%p ↓ · 고령비중 2배 ↑

올해 140만명 선이 무너진 광주 인구가 2050년에는 12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저출생과 청년 유출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면 서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광주시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천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5월 기준 130만명대로 집계됐다.

140만명이 봉고된 이유는 자연감소 전환과 청년층 순유출 확대가 직접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광주 인구는 2015년 이후 연간 6천~8천명 수준의 순유출이 지속돼 2020년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는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감소 폭이 연간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4년 출생아는 6천명으로 1995년 대비 약 73% 급감했고, 같은 해 사망자 9천136명보다 3천명 이상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에 도 못 미쳐 초저출생 고착이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광주는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순유출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순유출은 9천1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8천939명이 빠져 나가 연말까지 1만명 이상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층 (20~39세)에서 2024년 한 해에만 6천 5명이 순유출됐으며, 전출 사유의 절반이 직업적 (이직·취업) 요인(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25~2052년 약

26만6천명 (-18.4%)이 줄어 30년 내로 120만명대 까지, 현재 인구 규모의 8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고령인구 급증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중위연령은 2025년 45.1세에서 2052년 57.3세까지 상승해 고령화가 급격히 심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25년 전체 인구의 70.9%에서 2052년 52.5%로 18.4%p 감소하며 지역의 핵심 노동력 기반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7.9%에서 38.8%로 20.9%p 증가해 약 3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1.1%에서 2025년 8.7%로 2.4%p 줄어 인구 재생산 구조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공급의 급감, 내수 기반의 축소, 세수 감소 등 도시 성장 잠재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광주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변은진 기자



독립운동가 故 이기홍 선생 추모식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故 이기홍 선생 추모식’이 지난 6일 오전 북구 광주학생운동기념관에서 열렸다. 1912년 완도에서 태어난 선생은 1929년 광주고보(현 광주일고)에 입학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했으며, 이듬해 투옥 중인 학우들을 위해 시험을 거부하고 퇴교하는 백지 투쟁을 주도하다 퇴학당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넘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100만4천여명

월 200만원 이상은 8만4천여명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천 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71명, 여성이 6만1천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9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200만원 이상 8만4천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 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천845명, 유족연금 1만2천128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아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천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허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연합뉴스

전남 농어민공익수당 내년부터 70만원 지급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돼 70만원이 지급된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원 증액한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년간 동결됐으나 이번 인상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대상자는 22만 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년부터 지급돼 왔다.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에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농어민공익수당 내년부터 70만원 지급

전남도는 7일 “농산어촌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25만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자체가 5년마다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다. 규모와 구조, 분포, 경영 형태 등을 조사해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을 비롯한 영농기술 발전, 농산어촌 인구 구조 변화 등 최근 농림어업 분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목이 포함됐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호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올해 2천여명의 통계 조사요원을 투입해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취 / 급 / 품 / 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카트리지
■ 레이저 및 임프크트 프린터 · 임대 · A/S
■ 전신소스포틀 · 레이저(토너/드럼)
■ 각종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대명OA T.375-5880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에게에서 발생하는 기아, 비아, 미혼모, 아동 및 청소년 등을 일시보호 후 친정모를 찾아주거나 국외입양 등을 통해 양보를 결여하여 아동들에게 바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설립 062)222-1095, 10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1738
명예훼손
피고 인 임재원

위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12. 4.

재판장 판사 김 용 규
판사 김 준 영
판사 김 은 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13
포고제2호위판부

피고 인 양 최성배 외 1명
위 피고인들은 포고제2호위판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18
포고제2호위판부

피고 인 양 김 갑찬식
위 피고인은 포고제2호위판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19
포고제2호위판부

피고 인 양 김 갑찬식
위 피고인은 포고제2호위판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21
포고제2호위판부

피고 인 양 최경수 외 1명
위 피고인들은 포고제2호위판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12. 4.

재판장 판사 김 용 규
판사 김 준 영
판사 김 은 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24
포고제2호위판부

피고 인 양 유규인
위 피고인은 포고제2호위판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26
포고제2호위판부

피고 인 양 한남수
위 피고인은 포고제2호위판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1) 괴마상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